튀르키예[[1]](#footnote-1) 무슬림 대상 전방개척 선교에서 한인 사역자의 역할

문승호

주님의 지상위임명령의 남은 과제 중에 하나는 이슬람권 선교이다. 이슬람권 중에서 튀르크(Turk)계는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실크로드 상에 거주하며 큰 민족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그 중에서 튀르키예(Türkiye)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이슬람권 선교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튀르크와 한민족은 오랜 역사적 관계성을 갖고 있으며 언어와 문화적으로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한인 선교사들은 튀르크계 민족들 가운데에서 풍성한 사역적인 열매들을 맺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필자가 지난 20여 년간 튀르키예 지방 도시에서 수행해 온 교회개척사역 경험을 바탕으로 튀르키예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전방개척 선교사역에서 한인 사역자의 역할과 장점 그리고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튀르키예(Türkiye)와 튀르키예인(Türkiyeli)

튀르키예는 영토 역사와 민족 역사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영토 역사를 살펴 보면, 튀르키예에 튀르크 민족이 이주하기 전에 히타이트를 비롯해서 리디아, 프리기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제국이 자리했었다. 튀르크 민족이 이주하기 시작한 11세기 이 후에는 셀축 튀르크제국, 오스만 제국 그리고 튀르키예 공화국이 자리잡았다. 민족의 역사로 보면 훈족, 돌궐족, 위그루족, 셀추크와 오스만을 거쳐서 튀르키예 공화국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튀르키에는 중앙아시아의 튀르크족이 서진하여 아나돌리아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원래 거주하고 있던 다양한 종족들과 혼합되어 형성된 나라라고 볼 수 있다.

튀르키예 공화국의 대표적인 종교 문화는 이슬람 순니와 알레비[[2]](#footnote-2) 문화이다. 이 대표적인 문화 이면에는 위에 언급한 역사적 배경에서 나온 이교 문화, 기독교 문화, 중앙아시아의 튀르크 문화가 혼재되어 있다. 그렇기때문에 필자는 튀르크라는 말 보다는 튀르키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튀르키예인(Türkiyeli)이라고 부르기를 선호한다. 현재 튀르키예는 튀르크족과 쿠르드족, 아랍족 등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선교 환경은 튀르크인들이 페르시아와 아랍을 포함한 중동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튀르키예는 복잡한 역사적인 배경과 다양한 이슬람 국가들과 접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중동에서의 경제적 위상과 정치적 힘을 통해 오랫동안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튀르키예 교회가 이슬람 선교의 중요한 위치와 영향력을 가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튀르키예의 영적 상황

튀르키예 인들은 친절하고 손님접대를 잘하고 외향적이며 또한 종교적이다. 서구적 미디어와 세속주의가 근본적인 이슬람 신앙을 잠식해 가는 상황에서도 많은 튀르크인들은 이슬람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코란의 가르침을 현대화하고 자유주의적인 분위기를 취하였다. 실제로 일부 근본주의적인 무슬림 학자들중에는 타종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장려하기도 한다. 이런 문화적 풍토로 인해서 어디에서나 어떤 부류의 사회적 그룹이나 튀르크 인들을 영적인 대화로 초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튀르키예 기독교인들은 외적인 형태를 강조하는 이슬람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특수한 도전들을 안고 있다. 끈끈하게 결속된 가족들은 구성원들에게 종교적, 문화적 규범을 따르도록 압력을 가한다.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자신이 거부당하고 가족 안에서 상속이나 교육에 대한 가족의 지원이 차단되는 것을 경험한다. 그들은 직장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고용된 경우에도 직장에서 괴롭힘과 불평등한 대우와 희생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튀르키예 인들이 복음을 듣고 응답하는 비율은 실제로 매우 낮다. 하지만 무슬림이대다수인 튀르키예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폭풍의 한 가운데에서 선명한 등대의 불빛을 보는 것과 같은 희망을 갖게 한다.

튀르키예 전방개척 선교상황

튀르키예의 선교는 1820년 이후 미국 선교사들이 입국하며 시작되었다. 오스만 제국이 선교사의 입국을 허락했으나 무슬림들 중에 개종자를 찾기가 어려워 선교사역은 주로 아르메니아(Armenians), 룸(Greeks), 수리아(Assyrians) 사람들 사이에 일어났다. 직접 무슬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보다는 고대 교회의 후손들을 전도하여 그들이 무슬림을 전도하게 하려는 전략이었다. 그 결과로 오스만 제국내에 아르메니아 개신교회가 생겼다.

세계1차 대전 이후 오스만 제국이 망하고 튀르키예 공화국이 건국되며 선교사역은 암흑의 시대로 들어갔다. 1935년에 아르메니아 개신교의 바흐람 타트키안(Vahram Tatikian)에 의한 사역, 그 이후에는 바드릭 예테르(Badrik Yeter)과 야곱 아콥얀(Yakup Akopyan)에 의한 개인적인 사역이 있었으나 튀르키예의 현대 선교는 1961년 서구 선교사의 입국으로 시작되었다. 소수의 신자가 생겨났고 1970년 대에 두개의 모임이 생겼다. 1978년에 신약성경 번역을 시작해서 1987년에 마쳤다. 1980년대에 이스탄불 외에 앙카라, 이즈미르 등 대도시에 세워졌고 부르사, 아다나, 가지안텝에, 1987년에 가서는 디야르바크르에 교회가 시작되었다. 1972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전국 신자들이 여름 천막 캠프를 열고 모였다. 1980년대 여름 천막 캠프는 튀르키예 개신교 전 신자들이 만나는 자리였다.

1983년에 선교사들의 연합 모임인 LAC(Leaders Adviser Council)이 시작되었고 1989년에 튀르키예 개신교 협의회(TEK)이 결성되었다. 1995년 서울에서 열린 GCOWE’95대회에 약 20 여 명의 튀르키예 교회 대표단이 참석하여 튀르키예의 복음화를 위해 “모든 도에 하나의 교회, 모든 가정에 신약성경을”(Her ilde bir kilise her evde bir tane incil ; one church in every province and one New Testament in every home)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돌아왔다. 튀르키예 개신교협의회(TEK)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996년에 SILAS라는 국내선교회를 결성했다.

튀르키예 선교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사건은 2001년 튀르키예 개신교협의회는 이스탄불(Bostanci Gosteri Merkez)에서 2000여 명 이상이 모여 공개적으로 부활절 축하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행사를 실시한 것이다. 이후 2000년대에 일련의 개신교회에 대한 매스미디어의 흑색 선전 및 비방 등이 다양한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다루어지며 교회들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었다. 수년 동안 각 종 텔레비전들은 기독교와 기독교 선교를 비방하며 국민들을 선동하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진행했다. 교회 지도자들 일부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기독교를 변증하는 기회를 얻기도 했으나 일방적인 언론공격에 속수무책이었다. 이런 언론의 선동 이후에 전국의 교회들은 폭력을 수반한 다양한 위협과 테러 공격을 받았다. 2007년의 말라티야(Malatya) 순교사건은 그 절정이었으며 트라브존(Trabzon) 카톨릭 신부가 주일 예배중에 살해되고, 이켄더룬(İskenderun)의 정교회 신부가 교회 정원에서 죽임을 당했으며 아르메니아 교회의 지도자가 이스탄불의 길거리에서 대낮에 살해 당하는 등 일련의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한동안 계속되었다. 이런 와중에도 아래의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튀르키예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그림 1. 연도별 튀르키에 교인수 증가 상황

그림1에서 알 수 있듯이 2000년에 신자가 1145명이었는데 2021년에 7333명으로 늘었다. 교회 수는 2021년 현재 약 180여개이다. 그 중에 120 여개는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모인다. 11개의 교회는 전통적이며 역사적인 예배당 건물을 사용 중에 있다. 전국에 81개의 도(il) 전체에 절반 이상의 도에 교회가 존재한다. 많은 교회들이 유지재단(Vakif) 혹은 협의회(Dernek)의 형태로 정부에 등록했으며 법적 지위를 얻어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0년 후반에 뮤지데 에프엠(Mujde FM) 라디오가 이스탄불에서 방송 송출을 시작하여 지금은 쉬마 라디오(Radio Şema)가 앙카라(Ankara), 삼순(Samsun), 안탈야(Antalya), 마르딘(Mardin)에 송출하고 있다. 인터넷 라디오로 마라나타(Maranata)가 있다. 2 개의 텔레비전 복음 방송(Kanal Hayat, Sat7)이 튀르크사트(Turksat) 위성을 통해 방송되고 있다.

튀르키예에는 인가된 정규 신학교가 없으나 선교사들에 의한 운영되는 신학교들이 있다. 1989년에 비두니아 신학교가 2년제로 운영되다가 이후에 하사트(HASAT)으로 바뀌어 이스탄불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교육하고 있다. 앙카라에 필립푸스(PILIPUS) 신학교 1년 과정으로 운영중이다. 이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제자 양육하는 신학교육으로 이이초반(IYI COBAN), 토훔(TOHUM), 하바리 코스(HAVARI KURS) 등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해외신학교들이 있다. 한국 선교사들이 주도하는 토훔 신학교는 이스탄불에서 정기적으로 주말 수업을 진행하며 이이초반은 초기에 제자훈련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1~2주 집중 프로그램으로 연 3회 운영하며 전체 커리큘럼을 마치면 ATA 인정의 디플로마를 수여한다.

어린이 사역을 위하여 3개 이상의 전문 사역단체가 있으며 어린이 성경, 찬양 그리고 성경공부 교재의 출판 및 보급, 교사교육, 여름캠프 등 다양하고 역동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다음세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년사역이 전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부 교회는 해외선교회를 결성하고 3명 이상의 선교사를 중앙아시아와 흑해 지역에 파송했다. 최근 코비드19시대를 맞아 비대면 온라인 전도사역이 활발하게 발전되어 다양한 SNS를 통해 전도와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튀르키예 정부는 2019년 이후 185명의 선교사와 가족들을 국가안보의 위협이란 명분으로 국외로 추방 시켰다.

한국 선교사의 튀르키예 전방개척 선교

한국인 사역자들이 튀르키예 전방개척 선교에 상당히 공헌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한국과 튀르키예는 문화적으로 유사하다. 홉스테드(Hofstede)의 국가차원 문화 비교 이론을 보면 설명이 가능하다. 홉스테드는 평등문화와 불평등문화(권력거리)[[3]](#footnote-3),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불확실성 회피와 수용[[4]](#footnote-4), 남성적 문화과 여성적 문화[[5]](#footnote-5), 단기지향적 문화와 장기지향적 문화[[6]](#footnote-6), 자적 문화와 절제 문화[[7]](#footnote-7) 등의 항목으로 76개 국가의 문화를 비교 연구하였다. 한국과 튀르키예는 권력거리가 멀고 집단주의문화에 속한다. 그리고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문화이다. 이 정도의 항목으로도 두 나라가 얼마나 유사한 문화를 보여주는 지 알 수 있다. 홉스테드 이후의 다양한 연구들이 이 결과를 지지한다. 실제 튀르키예에서 일상에 나타난 문화나 정서가 한국과 많은 면에서 유사하다. 어른을 공경하는 것, 음식을 서로 나누는 것, 이웃 간에 허물없이 가까이 지내는 것, 싫다고 해도 여러 번 권하는 것 등 유사 문화로 인해 일상에서 에너지 소비가 적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인이 튀르키예 문화 안에서 선교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전방개척 선교에 공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둘째는 한국인은 터키어를 빨리 배운다. 어떤 면에서 한국인이 일본어를 잘 배우는 것과 유사하다. 튀르크어와 한국어가 학문적으로 우랄알타이어족에 속한다는 이론이 있고 실제로 문법적으로 정서적으로 매우 유사한 언어라는 것은 튀르크어를 배우면서 느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많은 경우 빨리 배운다. 단기사역자들은 1~2년 정도의 단기간 사역을 할 경우 짧은 시간 안에 어느 수준의 언어를 배우고 동시에 사역에 참여할 수 있어서 큰 장점이다. 무슬림을 전도하는 일에 언어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단기사역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어느 수준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익한 점이다.

셋째는 한국 선교사의 사역 연수가 길다. 튀르키예에서 사역하는 서구 선교사들의 평균 사역기간이 4.5년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국 선교사들에 대한 명확한 조사는 없었지만 훨씬 길다. 2021년 3월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대표적인 교단 선교회의 튀르키예 선교사들의 평균 사역기간은 17년이다. 필자가 속한 선교회의 현재 사역중인 선교사의 평균 연수는12년이다. 철수한 사역자들을 포함한다면 훨씬 더 길 수 있다. 급속히 빠른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어떤 면에서 긴 사역 연수가 그렇게 중요한 변수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복음이 인격과 인격을 통해 전달된다는 점과 무슬림 사회에서 열매가 느리게 나타난다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장점이 더 많다.

넷째는 튀르키예와 한국은 국가간 상호 우호적이다. 과거가 얽히지 않았고 서구가 아닌 아시아 국가라는 점이 장점이다. 튀르크인들은 유독 일본과 한국인들을 좋아한다. 십자군 전쟁이나 19세기 서구 열강에 의한 전쟁 경험은 튀르크인들에게 불편한 깊은 감정의 골이 패여 있다. 반면에 한국에게는 형제의 나라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다섯째는 튀르크인들은 한국 문화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 한국의 K-Pop과 드라마 열풍은 터키 전역을 휩쓸고 있다. 세계적으로 한국의 문화산업의 위상이 높아지는 현실 속에서 튀르키예는 한국에게 고마운 고객이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튀르크인들이 많다. 튀르키예는 한국문화원이 설치되어 있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여러 개의 세종학당이 있으며 그외에도 선교사들이 사설로 운영하는 한국문화 센터가 곳곳에 있다. 그만큼 많은 요구가 있는 것이다.

튀르키예 전방개척 선교에서 한국 선교사의 공헌

한국 선교사들은 80년대부터 튀르키예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당시 한국인은 소수였으나 1980년대에 튀르키예 교회를 세우는데 주도적으로 공헌했다. 9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며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었다. 대부분의 한국 선교사들은 복음전도와 교회개척에 집중했다. 복음을 전하면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분위기 속에서 성경을 배포하는 일과 복음 전도하는 일에 대담했다. 현재 한국 선교사들은 많은 경우 제자양육과 교회개척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 선교사들은 다양한 지역과 도시에서 교회개척 사역에 헌신하고 있다. 한국 선교사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신학교육 사역이 두 개 있으며 튀르키예 전체 선교사들과 현지 교회 지도자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필자는 2021년 6월에 한국선교사들 중에 20명의 교회 개척자들을 대상으로 ‘튀르키예에서 활동하는 한국 선교사의 교차문화 리더십 질적인 평가’라는 주제의 연구를 위해 인터뷰를 했다. 훨씬 많은 선교사들이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지만10년 이상의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인터뷰에서 발견된 내용들 중에 중요 부분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한국선교사들의 선교 목적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다. 대부분 복음주의적이며 건전한 구속적 신학을 기초로 영혼구원을 위한 복음전도와 제자양육과 교회개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 방향이 선명했다. 선교 사역의 목적이 분명하고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는 소명감과 인내심으로 한 길을 향해 한결같이 꾸준히 달려가는 모습들이었다.

둘째는 연구 참여자인20 명의 선교사가 모두 사역의 열매를 맺고 있었다. 물론 튀르키예의 영적인 상황은 복음을 듣고 쉽게 반응하는 분위기는 결코 아니다. 열매 맺는 속도와 사역의 진도가 매우 느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60여 명의 공동체가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었다. 튀르크 인들이 제자로 양육되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각 곳에 흩어져 대부분 오랜 기간 섬기고 있었고 그 인내를 통해 열매를 맺고 있다.

셋째는 한국 선교사들은 말씀과 기도 중심의 신앙을 견지하고 있을 뿐아니라 실제 사역에 있어서도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여 가르치는 모습이 각 사역의 현장에 역력히 나타났다. 한걸음 더 나아가 말씀을 교회에 심어주는 과정에서 튀르크인들에게 적절한 방법을 찾는 모습은 20명이 한결 같았다. 한국의 방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경험이 있었고 이들의 영적인 수준과 문화적 방법을 따라 가르치고 있었다. 수용자 중심의 원리를 따라 신앙훈련을 지도하고 있었다.

넷째는 한국 선교사들이 인내와 헌신과 사랑으로 영적인 삶과 사역의 본을 보여주고 있었다. 힘에 넘치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사역에 온 힘을 쏟는 열정은 한국 선교사의 특별한 능력이다. 한국 선교사의 주변에 있는 현지 신자들은 하나같이 한국 선교사의 헌신에 감동을 받고 감사하고 있었다.

다섯째는 선교사가 파송 교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받고 있었다. 그동안 한국 선교사는 혼자 일한다는 느낌을 많이 주었는데 인터뷰에 응한 많은 선교사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파송 교회와 함께 교회 개척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았다. 파송교회들은 1~2년의 단기사역자를 보내서 현장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었다. 여름마다 단기팀을 보내 교회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전도와 봉사 사역을 감당했다. 선교사가 혼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직접 선교현장에 투입되는 귀한 모습이었다. 이러한 동역은 열매를 맺는데 효과적이었고 교회개척의 시간을 단축하고 있음을 보았다.

한국 선교사들이 튀르키예 전방개척 선교 현장에서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는 부분을 더욱 계발하고 발전시켜 이 공헌이 전방개척 선교사역에 유익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튀르키예 전방개척 선교사역을 위한 한국 선교사의 과제

한국 선교사가 튀르키예 전방개척 선교사역에 있어서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동시에 한국 선교사들에게 도전이 되는 과제도 있다. 이러한 도전들을 선교 전략적인 차원에서 극복해 나갈 때에 전방개척 선교사역을 더욱 효과적으로 감당할 것이라 사료된다.

첫째는 종교신학적 성찰의 필요이다. 한국 선교사들은 복음주의적 신학을 견지하고 있다. 이 말은 보수적인 신학이라고 말해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보수 신학을 공부한 많은 한국 선교사들은 종교신학적인 측면에서 고민이 많지 않다. 종교신학적으로 배타주의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배타주의는 일반 문화와 타종교와 그들의 경전을 분리 시킴으로써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를 분리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한 창조교리와 구원론을 분리시켰다. 이 결과로 창조와 인간의 양심에 뿌리를 둔 하나님에 대한 우주적인 지식으로부터 특별계시와 역사의 특수성을 구별했다. 이것은 타종교에 있는 일반계시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타종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흔적이 있음을 놓치게 된다.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일반계시에 대해 너무 오랫동안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다. 당연히 예수그리스도는 인간의 유일한 구원이며 다른 길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 결론을 미리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반계시 아래에 있는 타종교의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길목을 막아 버리는 오류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튀르키예는 이슬람이 국가종교는 아니나 거의 대다수가 무슬림이다. 이들이 가진 종교와 문화는 이슬람에 뿌리를 두었다. 이를 배타적으로 악한 세력에 속한 것으로 단정짓는 태도를 일관한다면 복음전도의 접촉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들이 가진 것이 구원을 위해 충분하지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보고 거기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교차 문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한국인은 특별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자신의 문화에 대한 애착이 유난히 강하다. 아마도 단일문화와 단일언어 환경 속에서 형성된 기질일 수 있다. 튀르키예 문화가 한국과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일상에서는 한국인에게 매우 유리한 측면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문화가 다르다. 유사하지만 문화의 깊이가 다르다. 손님 접대 문화는 튀르키예의 중요한 문화중에 하나라는 것을 모두가 잘 안다. 한국 역시 전통적으로 손님접대를 중시하지만 튀르키예의 손님접대와는 다르다. 튀르키예에서는 모든 것을 손님에게 맞춘다. 주일에 교회 갈 시간에 손님이 오면 교회에 갈 수 없다. 먼저 손님을 접대한다. 주일에 손님이 온다고 하면 거절하지 못한다. 기독교인 손님이 무슬림 주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마음에 원치 않아도 모두 들어준다. 심하면 영접기도까지 따라 한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손님을 부끄럽게 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선교지의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면 종종 현지 교회와 교인들을 힘들게 만드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이런 실수는 신뢰관계를 세우지 못하고 협력을 어렵게 만든다.

세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협력과 연합이 필요하다. 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헌신적으로 일하는 한편, 자신의 사역과 교회에 집중해서 일하다 보니 튀르키예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사역의 흐름이나 연합에 관심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난다. 선교단체 혹은 선교사가 어던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가져올 때 이것이 이 땅에 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인가를 묻기보다는 실행을 전제로 접근한다. 현지인이나 다른 선교사들의 견해는 중요하지 않으며 실행을 전제로한 논의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선교사 혹은 단체의 비전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하나님께서 전방개척 선교지에 주시는 비전과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전심으로 동참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1. 터키 정부의 요청에 따라 유엔은 올해부터 터키(Turkey)에서 튀르키예(Türkiye)로 국제 사회에서 국가 명칭을 ‘튀르키예’로 부르기로 했다. 한글 공식표기는 “튀르키예”이다. [↑](#footnote-ref-1)
2. 알리와 12이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으로 여겨지는 하지 벡타쉬의 신비적인 이슬람 분파로 시아파로 알려져 있다. 그 수는 튀르키예 전체에 약 2천5백만 명 정도이다. [↑](#footnote-ref-2)
3. 권력 거리(power distance)란 “한 국가의 제도나 조직의 힘 없 는 구성원들이 권력의 불평등한 분포를 기대하고 수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footnote-ref-3)
4. 각 사회마다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 그 문화에 자리를 잡아서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정도의 차이를 의미한다. [↑](#footnote-ref-4)
5. 남성성과 여성성이란 각 문화권에서 사람들이 개인적 성취나 물질적 가치를 더 중 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사람들 간의 관계나 삶의 질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지를 기 준으로 구분한다 [↑](#footnote-ref-5)
6. 어떤 문화에서 사람들이 시간에 대해 가지는 관념이나 태도를 의미한다. 시간을 개인의 의지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장기지향성과 단기 지향성을 구분한다. [↑](#footnote-ref-6)
7. 자적은 재미있게 지내기, 삶 즐기기와 연관된 인간의 기본적 자연적 욕망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충족을 허용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자적과 반대의 극, 즉 자제는 그러한 욕구 충족이 엄격한 사회적 규범에 의해 규제되 고 억제될 필요가 있다는 확신을 나타낸다. [↑](#footnote-ref-7)